

## 공익 대변인

Reshma Saujani (D)

제 이름은 레시마 사우자니입니다.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하는 공직자가 턱없이 부족한 지금,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회를 만들고,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 위해 공익 대변인직에 출마한 진보적인 민주당원입니다. 저의 부모님은 이곳에 아무것도 손에 쥌 게 없는 난민으로 오셨지만, 이 나라는 우리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. 밤낮없이 고생하신 부모님에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. 하지만 부모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저에게 어떤 일에서든지 끝까지 싸우고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. 바로 이것에 제가 다른 이들을 위해 봉하사는 데 제 인생을 바친 이유입니다. 어렸을 때 저는 오로지 제 피부 색깔 때문에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왕따 관습에 맞서는 모임을 설립하였습니다. 그 이후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대학 공부를 마쳤고, 한 번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꿈꾸던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. 저는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. 이민자들을 위해 무료로 망명신청을 맡은 일에서부터 유권자 등록을 도운 일, 또 도시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해결책을 제공하는 일까지, 저는 뉴요커들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 왔습니다. 우리는 일을 맡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논쟁이나 정치적 놀이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아메리칸 드림이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. 올버니와 워싱턴에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보다 자신들을 우선시하고 있다면, 그들은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버린 것입니다. 우리는 진보적인 새 지도자들이 필요하고, 저는 그 필요에 부응해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. 부 공익 대변인으로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저는 올버니나 시청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. 제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서류미비 학생들이 DREAM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소녀들을 돕기 위해 저는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. Girls Who Code 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소녀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손에 쥐여주었습니다. 저는 8 백만 뉴요커들을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공익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- 노인들을 위해 저렴한 주거시설을,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학교를,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하며,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시청에서 목소리를 힘껏 내겠습니다. 여러분의 다음 공익 대변인으로 저 레시마 사우자니를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저는 여러분을 위해 실질적인 결과와 기회를 창출해 내기 위해 매일 분주하게 움직이겠습니다. 모든 보로에, 모든 동네에 직접 다니면서 우리가 필요한 공익 대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*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.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.*